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정책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6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19일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동신대학교 조원탁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는 손희정(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윤명성 전 세종경찰청장, 이병희 광주시의사회 부회장(정책담당), 이운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조용성 국립공원공단 과장, 최창욱 광주광역시사회 부회장(정책담당)이 참여했다. 임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효율적 방안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문제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 △행정단속 체계의 문제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노병하 기자



혈액원, 오월정신 시민헌혈 홍보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지난 17일 5·18민중항쟁 44주년 기념 전야제 해방광주 프로그램에서 헌혈 홍보부스와 헌혈 버스를 운영하며 오월 헌혈정신을 알리는 시민헌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

이날 홍보 캠페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헌혈 참여 상황을 알리고 오월 헌혈정신을 기리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박미경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 적십자 봉사원 및 일반시민 1000여명이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박미경 상임행사위원장은 "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헌혈과 헌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혈액원과 연대해 헌혈정신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광주사회서비스원, '인권옹호 자문단' 위촉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6일 '사회서비스 인권옹호 자문단'을 신규 위촉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인권옹호사업에 본격 나섰다.(사진)

19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인권옹호 자문단은 12월까지의 임기 동안 실질적인 인권옹호 지원사업 방향을 도출하고, 개선 사항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변호사,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현장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견과 문제의식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를 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인권옹호 사업 방향 △온오프라인 상담체계 활성화 △스캔들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권익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중소기업인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진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영희 광주전남제주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길재 광주전남식품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형준 광주전남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종호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류승원 광주전남크리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경문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순병선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재국 한국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남 나주전력기자재에너지밸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소영 기자



전남대병원, 김봉중 교수 초청 명사특강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10일 6동 8층 백년홀에서 전남대학교 사학과 김봉중 교수를 초청해 '미래지향적 삶과 역사'를 주제로 명사초청 특강을 했다.(사진)

19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교육수련실(실장 정숙인 감염내과 교수)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은 전남대병원 임직원, 지역민 등 약 150명이 모인 가운데 올해 첫 번째로 열렸다.

김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미국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업적인 미국 초대 국경일 추수감사절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을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대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며 "역사는 선택과 기억의 예술"이라고 강의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광산구 '5월에 뜬 산타' 행사 개최

광주 광산구는 하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지역 내 돌봄 가정 아동의 소원 성취를 위해 '5월의 산타'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

하남동 지사협 위원들은 산타 복장을 차려입고 10명의 아이들에게 30만원 씩 총 3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형식 지원금을 전달했다. 눈 수술을 하기 전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하고 싶은 아이의 펜션 비용과 가방이 없어 일회용 봉투에 학용품이 담겨 다니는 학생의 가방 구매 등을 위한 지원금이다.

하남동 주민들은 지난해 주민 주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한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고, 지역 교육기관과 복지 시설에서 아동을 추천받아 소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

연기로 이혼 정면 돌파 황정은 "시청자에게 감사해"

배우 황정은(사진)이 드라마 '7인의 부활'을 끝내고 "긴 시간 함께해준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은 18일 밤 방송된 16회를 끝으로 종영했다. 마지막 회 시청률은 4.1%(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였다. 황정은은 "금라회를 만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해서 촬영했고 그래서 매 순간 긴장도 많이 됐지만 또 그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금라회가 변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 보았다면 그것이 제게는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작품과 인물로 만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다. 연기자 황정은으로 만날 다음을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허경환, 김호중 술자리 동석 루머에 "나 아니다" 인증

코미디언 허경환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즉각 부인했다.

허경환은 19일 인스타그램에 지난 9일 밤 8시44분에 찍은 사진을 올리고 "저 아니다. 다들 신경 써주세요 감사하다"고 했다.(사진) 허경환은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를 내기 직전 유흥 주점에 함께 간 연예인 중 한 명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이 자리엔 래퍼 출신 유명 가수와 코미디언 등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환이 해당 코미디언이라는 소문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상황이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직전 유흥 주점에 간 게 맞고 술잔을 입대 한 것도 맞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김호중은 또 사고 직후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도 받는다. 뉴시스

뉴진스 부모들, '계약분쟁' 전문변호사 통해 탄원서 제출

그룹 '뉴진스(사진)'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지난 14일 강진석 이엔티법을 사무소 변호사(48·연수원 41기)를 통해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계약 분쟁, 출연료 분쟁 소송 등을 전문으로 맡아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로서 연습생들에게 전속계약 관련 강의 등도 자주 해왔다.

강 변호사 본인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전속계약서검토,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등이 전문 업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견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뉴진스 부모들과 함께 하이브와 전속계약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강 변호사는 한 매체에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의 탄원서 제출을 도와드리는 업무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이브와 전속계약을 다룰 가능성을 일단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원서를 낼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 민 대표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업계는 궁금증을 품고 있다. 특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대리인'이라고 명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이번 가처분 심리 당일 제출한 탄원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민 대표가 '뉴진스 맘'으로 불렸고, 멤버들과 이들의 부모가 민 대표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해온 만큼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예상된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상대로 감사권을 발동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첫 입장을 내면서 "뉴진스 멤버들,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민 대표가 앞서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특화된 곳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심문기일에서 민 대표가 아티스트의 보호에 관심이 없다며 뉴진스 멤버들을 방패 삼는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정황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멤버들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자신들의 소중한 아티스트라며 내달 도쿄돔 팬미팅까지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